

# 기독교적 경제윤리와 그 현실적 가능성

Christian Economic Ethics and  
Its Relevance in Reality

조상국

I. 서론

II. 기독교 경제윤리의 현실적 가능성

III. 성경에 대한 두 왕국 접근법: 하나님 나라와 세상왕국

IV. 결론



조상국,  
안동교육대와 영남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 효성여대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Abstract

Today we have faced various economic problems. One of the most serious economic problem nowadays is severe conflicts between the have and the not-have. With 10,000,000 Christians and 50,000 churches in Korea, Why do we have to face this conflict? For this I chose two reasons: 1. due to dualism between faith and economic life, that is, separation of spiritual life from physical economic life. 2. non-existence or deficiency of living faith communities to encourage to live according to biblical economic ethics.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possibility of biblical economic ethics in reality: the high standard of economic ethics in the New Testament is regarded, by some Christians, not possible in this world, but in eschatological kingdom of God. Some others believe that Jesus' teachings about economic life should be practiced in this world by true Christian community. Humanity always faces a double task. The one is to reduce the anarchy of the world to some kind of immediately sufferable order and unity: and the other is to set these tentative and insecure unities and achievements under the criticism of the ultimate ideal.

Second, we follow Jim Halteman's the two kingdom approach to the Bible. The characteristics of two kingdoms - the kingdom of God and the kingdom of this world - are elaborated and contrasted. And the community of faith and kingdom practice is pursued, based on this two kingdom approach. Christian ethics in the market capitalism and the way to put it into practice through a voluntary faith community is examined here.

In conclusion, setting up voluntary strong faith community which integrates economic life into Christian faith is an urgent alternative to this turbulent secular world.

## I. 서론

자본주의 및 시장체제는 그 자체 안에 많은 모순과 갈등을 가지고 있다. 교환체제가 생산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이긴 하지만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뢰와 정직, 남을 존중하는 태도 등의 뒷받침이 있는 통합체제로서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합체제라는 것은 곧 경제윤리에 바로 선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경제문제는 주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 오고 있다. 더 많은 생산을 하게되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하에서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적이 없다.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빈곤감을 증가시켜서 위기감을 주고 있는 듯한 현실의 모습이다. 인플레이션의 위협은 또 어떤가?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현대 경제학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이다. 또한 폐놀 방류 사건으로 그 심각성을 확인하게 된 환경파괴 문제는 지구촌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소비와 물질만능 사상에 따른 투기심 조장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위태롭게 하고 있다. 크리스찬이 전체인구의 1/4인 1000만을 헤아리고 3만 개의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는 한국이 어찌하여 경제윤리는 이렇게 서 있지 않고 경제생활에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지 않고 있는 듯한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필자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경제관 및 경제윤리에 문제가 있는 때문이 아닐까? 신앙과 경제생활을

1) 사회조적을 위협체계, 교환체계, 통합체제로 파악한 사람은 K. E. Boulding이었다. K. E. Boulding, *Beyond Economics: Essays on Society, Religion, and Ethic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8.

분리하려는 사고방식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두번째로는, 거둬난 자로서 구별된 경제생활을 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살아있는 신앙공동체가 부재하는 탓이 아닐까?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칼빈은 신앙과 세상을 두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세속도시에 대한 관심이 그의 기독교 신앙의 직접적인 표현이었다.<sup>2)</sup> 신앙과 경제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신자들의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세속적 규범과 방식이 통용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정한다. 사회가 우리의 관점과 행동을 규정해 버리도록 너무나 자주 허용했으며 우리 삶의 이 엄청난게 중요한 영역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적용하는데 실패했음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다.”<sup>3)</sup> 역사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때마다 기독교인들에게 부과되는 일정한 물질적 삶의 양식이 존재한다. 그 양식은 초대교회가 추종했던 양식이기도 하다.

두번째의 문제, 즉 강력한 공동체의 부재라는 측면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면서 공동체적 훈련과 유대와 실제 생활이 약한 상태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영향과 타협하게 되어 기독교 경제윤리가 세상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거둬난 기독교인의 삶을 누린다는 말은 공동체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하나의 기만일요 거짓된 종교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의 접촉과 연합은 반드시 남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기 때문이다.<sup>4)</sup>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 교제에는 반드시 그 몸의 지체들 사이에서 봉사를 교환하고 물질을 교환하며 의사를 교환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적 교제(각 개인들이 참

2) 앙드레 비엘러, 「칼빈의 경제윤리」, (성광문화사, 1985), 홍치모 역, p. 55.

3) Oxford Declaration (1990).

4) 위의 책 p. 34.

고 있는)는 단순한 종교적 환상과 위험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들을 상호 교환할 수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같은 명령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칼빈 당시의 집사직은 교회공동체 내외에서 교회 일원들의 물품과 용역을 재분배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었다. 오늘날의 집사제도는 칼빈 당시의 이같은 기관의 창백하고 빈약한 잔존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라는 인식과 그 인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태되어 나오는 책임의식이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로부터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sup>5)</sup>

하나님이 공통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 서로서로 형제 사랑으로 연합되어 상호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400여년 전에 칼빈은 이미 설파했다. 옥스포드 선언(1990)에서도 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불의하고 인간 이하의 상황을 직면해서 크리스찬의 경제적 가치관을 서로서로 고양하도록 격려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알고 있다. 윤리적인 요구는 단지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만 강화될 때에는 자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크리스찬의 경제적 가치관의 선포는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의 공동체에 배양해 줄 제도적 및 구조적 변화를 촉구할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적 경제윤리는 참으로 다양하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경제적 아이디어를 지지할 성경구절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따라서 하나님을 사회주의자, 공급주의자, 헨리 조지와 같은 단일세 주장자, 자본주의자 등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주장한다. 따라서 그 경제

---

5) 위의 책 p. 39.

적 윤리도 주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위에서 살펴 본 두 문제 즉 신앙과 경제생활의 분리와, 기독교 경제윤리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공동체 생활의 부재라는 두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기독교 경제윤리의 현실적 가능성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기독교 경제윤리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하나님 왕국과 세상 왕국의 두 왕국 접근법(Haltzman, 1988)을 소개한다. IV장에서는 결론으로서 경제윤리의 현실적인 긴급성과 이를 위한 적절한 신앙공동체 생활의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될 것이다.

## II. 기독교 경제윤리의 현실적 가능성

세속적인 경제윤리와 기독교적인 경제윤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속윤리도 타인의 생명과 생활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에 대한 세속적인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인정되고 있다. 실제적인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대단히 비싼 비용이 들게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거지들이 줄을 이어 서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돌보고 누구에게 주어야 할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세금을 더 내어서 소득 재분배를 하기를 원할 것이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감소하려는 것이다. 공리주의자(Utilitarian)들은 소득 또는 재산의 한계효용으로 소득 재분배의 윤리적 필요성을 설명한다. 즉, 부자가 누리는 소득의 한계효용은 가난한 자가 누리는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적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총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부자의 소득을 가난한 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속윤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조정과 중용의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합리적으로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희망적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들은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이해가 다음과 같이 기독교적 관점과는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아담 스미드는 이기주의란 ‘예정된 조화’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도덕적으로 좀 더 노력하면 이기심을 활용하여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리주의자들은 이성이 이기심의 무질서를 더 높은 조화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기심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무력한 것이라고 보았다. 토마스 홉스는 이기심이야말로 인간실존의 기초적인 실체라고 보았다.<sup>6)</sup> 인간 이성을 신뢰하고,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경제윤리에 대한 낙관론자들은 유토피아니즘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지급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역사를 통해 쌓여온 상식과 신중한 도덕적·윤리적 노력으로 이기심을 극복하고 지상에서 낙원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열정과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기독교 관점에서는 이기주의란 해로운 것이며, 강력한 것이어서 간단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간세상의 복잡한 비극적 경제문제들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 “정통크리스찬”도 많이 있다. 라인홀드 니이버에 의하면 기독교 윤리는 절대주의적인 “사랑의 윤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감사(gratitude)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 앞에서 참회(contrition)하는 것이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다. 악이 존재하는 중에서의 선한 삶, 선한 것이 있는 중에서도 악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윤리는 달성될 수 없는 수준이지만, 현실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달성해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니이버의 주장을 계속 들어보자. 성경의 경제윤리는 달성 불가능한 것을 과장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불가능성이 현실과 관계를 가지면서 현실을 고쳐나가듯 만족하지 않고 종말론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6) Reinhold Niebuh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35. p. 39.



두 가지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세상의 무질서를 단기적으로 좀 더 쉽게 견뎌낼 수 있는 질서와 통일체로 바꾸어 가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시험적이고 불안정한 질서를 궁극적인 이상의 비판 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sup>7)</sup>

기독교적 경제윤리는 왜 지켜야만 하는가? 사회적·도덕적인 목적으로 지켜서는 안된다고 니이버는 주장한다. 사회적·도덕적 효과는 부수적인 것이고, 어떤 때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편파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적을 사랑해야 한다. 수직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윤리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기뻐한 칠십인의 제자들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sup>8)</sup>고 가르치셨다. 이 내용은 세상의 악을 이기는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 기뻐하라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니이버의 견해를 요약하면, 경제윤리의 실천을 통해 낙원을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이 아닌 이 세상에는 경제적 낙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경제윤리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이다. 그렇게 하였을 때 생겨나는 얼마 간의 바람직한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

그러나 급진적 생활 방식을 요구하는 재침례파는 성경의 윤리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다.<sup>9)</sup> 즉, 재침례파 크리스찬들은 성경이란 하

7) *ibid.*, p. 60.

8) 누가복음 10장 20절.

9) 재침례파(Anabaptist)들은 1525년 쾰리히에서 “스위스 형제들”이 서로서로 세례를 줌으로써 소위 “제3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스위스 형제의 반란은 루터와 칼빈의 개혁 노력과는 전면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들이 살고있는 지리적인 영역에서 정치적 통제력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었다. 루터파는 카톨릭 정부조직 대신에 루터 조직으로 대체하였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같은 일을 행하였다. 좀 더 자세한 것은 Jim Halteman, “An Anabaptist Approach to Economic System”, ACE Bulletin 1990 Fall, issue #16, p. 6 참조.

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가르침은 매일매일의 실제 생활에 적용되도록 의도되어진 것이라고 강력히 믿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지키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을 의미 하였다.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들의 삶을 통한 전도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 재침례파들은 그들의 실천을 조직화하고 이론화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핵심되는 믿음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명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첫째는, 그분의 인간을 위한 완전한 의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된 예수를 통해서 그분과 화해케 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전면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교회 안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새 생활은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왕국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왕국)

둘째로,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들을 강제로 자기를 따르게 하시지는 않는다. 타락의 결과로 이기심이 팽배하게 되어서 세속적인 세상왕국은 그것이 좋아하는 대로 그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능하고 있다. (세상 세속왕국)

셋째로, 세속왕국의 참여가 성경적 가르침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 한, 신자들은 세상의 권위에 충성을 보인다. 그러나 성경이 세상의 방법에 대한 대안이 있을 때는, 비록 세속 세상의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일지라도 타락된 본성에서 나왔으므로 그것을 기각한다. 성경의 비폭력주의는 이들이 세속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대표적 영역이다.

넷째로, 가장 효과적인 복음전도는 신실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개발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분의 뜻을 함께 발전하려는 신앙공동체에서 가장 잘 만나주시기 때문이다.<sup>10)</sup>

요약하면 크리스찬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왕국 접근법은 재침례파와 주류 프로테스탄트의 사상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공

10) ibid.

동체의 역할은 재침해파들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전략은 실생활이라는 유효한 모델을 통해서 얻어지는 희망적인 부산물이다. 문화 변혁을 위해 침투자(infiltrator)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주류 프로테스탄트와는 이 점에서 분명히 대조를 이룬다. 세상 전체에서 기독교 경제윤리를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신앙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왕국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오고 있는 하늘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조금씩 맛보며, 굳건한 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세속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재침해파의 두 왕국 접근법이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두 왕국 접근법을 소개할 것이다.

### Ⅲ. 성경에 대한 두 왕국 접근법: 하나님 나라와 세상왕국<sup>11)</sup>

신약성경을 읽을 때 가장 놀랍고 흥분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가 기원 후 1세기에 이미 부분적으로 이 땅위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12:28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암시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역사에 친히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지만, 그 왕국을 좀 더 깊이 살펴 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왕국은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 놀랄만한 높은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와 천국(kingdom of heaven)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들이 나타나는 곳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주의를 요하는 구절이다.

초대교회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11) 이 장은 Jim Halteman, *Market Capitalism and Christianity*,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1988 Chapter 4를 요약한 것임.

와 씨름하여왔다. 전통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의 통치력이 경험되는 영역 또는 영역들을 공포함으로써 그의 적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되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자발적으로 복종시키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요한복음 3:3~5). 하나님 나라에는 두 단계가 있다: 즉 현재의 왕국과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미래의 왕국이 그것이다.<sup>12)</sup>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정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다스리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가끔 세속인과 성도들 모두 포함할 만큼 자주 확대해석되고 있어서, 미래에 세속인들이 성도들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그래서 구속된(redeemed) 삶을 살고있는 현재에 있어서의 모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 두번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신자들이 담당해야 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책임과 윤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경제생활에 있어서 두 왕국의 차이를 간과해 버렸다는 것은 염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 하나님 나라의 특성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구별지어 주는 중요한 특성들을 살펴보자. 첫째로, 니고데모의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불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인가 하는 성질을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요한복음 3:3).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의 세계관에 의해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오직 새로운 마음이 짐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다. 이

12) Edward Viening, ed., *The Zondervan Topical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1969), P.608. Halteman, op.cit., p. 43에서 재인용함.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마음과 감정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남(new birth)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오직 새로운 세계관 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해준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차적인 요건은 마음과 정신의 새로운 탄생이며 그로 인해서만 세상적인 이상과 가치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해줄 것이다.

두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잘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중요한 여러 가지 유혹과, 피상적인 현신, 세상 직업의 성공과 안전에 대한 집착 등을 극복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좋은 땅에 남아 있어서 열매 맺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이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흑백 배, 흑 육십 배, 흑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18~23)

하나님 나라의 세번째 특징은 이 왕국의 시민들은 세상 왕국의 시민들과 함께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3:24~30에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두 왕국은 확실히 구별되지만, 사회에서

공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요한복음 17:11, 14, 16).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는 성경의 주제 중에서 상당히 무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방 선진 세계에서의 현기독교가 세상에서의 삶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대해 로날드 사이더(Ronald Sider)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성경의 두 본문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첫째는 마태복음 7: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이다. 두번째로는 로마서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와 세상은 명백히 갈등관계에 있다. 많은 기독교 대학은 이러한 갈등의 깊이와 넓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과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 간의 근본적인 양립 불가능성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 주고 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한일서 2:15~16)<sup>13)</sup>

사이더의 메세지는 기독교 대학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세상왕국 사이에는 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태 13:44~48은 세

13) Ronald J. Sider, “The Christian College: Beachhead or Bullwork?” *The Other Side*, Vol. 14 (August 1978): 18~19. Halteman, op.cit., p. 46에서 재인용.

상왕국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는 더욱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판 받고 있을 때 예수는 하늘나라의 근원은 세속왕국과는 다르며 따라서 그의 왕국은 다른 행동 규범에 따라 행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요한복음 18:36)

이제까지 살펴 본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하늘나라 시민들에게 분명한 행동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행위규범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리스찬의 경험상 불명료성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특별히 경제생활에서 더욱 심한 현상이다. 실제로 경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된 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 경제적인 문제들에 관해 일치된 규범이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경제행위에 대한 성경적 내용의 대부분이 불분명하고 이상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신자들은 자주 경제행위에 대한 지침으로서는 세속적인 규범에 의존해야만 된다고 느낀다. 성경의 답들은 적용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하고도 관련된 두 가지 특징을 조사해서 하나님 나라 활동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은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지혜가 개인 혼자에게가 아니라 그룹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은 신약에 있어서 중심된 주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개인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운 일, 논란거리가 되는 일에는 모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

우에 그룹에 의한 선악의 분별과 제자화(discipling)가 필수적이다.

그룹별 사역 및 의사결정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공동체에 대해 각가지 종류별 은사를 주신 방법에서부터 도출된다. 신자들의 단체는 성경에서 인간의 몸에 비유되고 있다. 개인들은 그들이 받은 각각의 은사로 서로 보완하고 지원한다(고린도전서 10:17, 로마서 12:5). 이러한 은사들은 공동의 선과 일을 위해서 주어질 뿐 아니라 그 단체(몸)로 하여금 지혜롭게 나아갈 방향을 알아내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밀접하게 엮여진 가족이 그러하듯이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울고,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특성들이다(로마서 12:10~13). 아마도 고린도전서 13장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몸(교회, 신앙공동체)이 성공하는 열쇠일 것 같다. 만약 교회가 그 안에서 이 귀질들이 묘사한 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다른 특성들은 이 표현의 부산물이 될 것이고 교회의 분별하는 기능은 훨씬 더 신앙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분별하는데 도움이 될 보완적인 은사들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소명에 충실하게 남아있도록 서로서로 제자화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울 때 기울였던 조심성은 신자들의 단체(몸)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보여준다. 제자화 하는 일은 그가 특별히 관심 기울였던 일이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마태 16:16) 주님의 대답은 교회란, 신자들로 된 한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자들을 제자화 하는데 있어서 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자화 하는, 또는 “매고 푸는(binding and loosing)” 과정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한 예가 마태복음 18:15~20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에 한 사람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해결책이 발견되기까지 점진적으로 동료, 교회 사람들과 더 관련을 맺어 감으로써 해결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제자화와 관련해서 교회의 “매고 푸는” 능력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스나이더(Howard A. Snyder)도 “왕의 공동체”에서 교회란 이 시대



에 하나님 왕국의 실체를 구성하는 몸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4)</sup>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오지 않았으며 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교회의 생활과 일을 통해 이 왕국은 확장되고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교회를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 두 왕국의 비교

이상을 요약하면, 신앙공동체에 의해 구현되는 하나님 왕국은 이 왕국이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세속왕국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진리를 찾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공동체의 진지한 노력은 만약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한 몸으로서 함께 일하기를 위해 헌신한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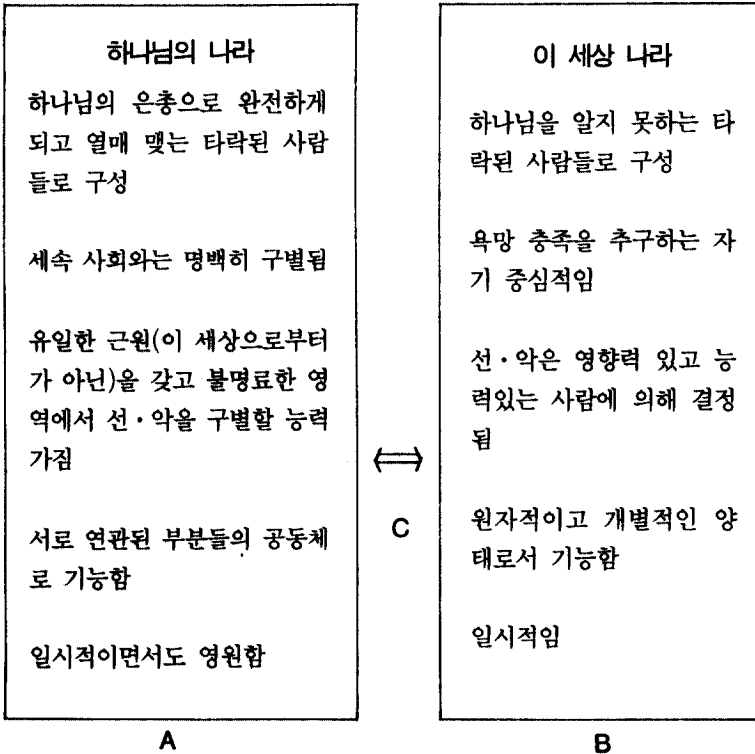
이 두 왕국 모델은 결코 하나님 영역의 보편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그의 통치하에 있는 영역의 일부가 그의 높은 목적에 헌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이곳에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합하기 때문이며, 가장 좋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이상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이상을 향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속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에 대해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두 왕국에 대한 비교를 도표를 통해 요약해보자(그림 1). 여기서 세상왕국은 현대 자본주의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

두 왕국은 상호 배반적으로 표현되었다. 왜냐하면 그 근원, 목표, 철학적 지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두 왕국 사이에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일차적 관심은 서로 다른 점을 찾아 내는

14) Howard A. Snyder, *The Community of the King*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77), p. 31. Halteman, op. cit., p. 49에서 다시 인용.

〈그림 1〉 두 개의 왕국



것이다.

우리는〈그림 1〉에서 세 영역을 찾아낼 수 있다. 첫번째는 하나님 나라 내에서의 관계로서 A로 표시되어 있다. 성경에서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믿는 자들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경제분야에 한정하여 살펴 볼 것이다. 영역 B는 세속왕국 내부의 관계이다. 경제분야에 있어서 이 영역은 그 사회가 받아들이는 특정한 경제체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이 위

주가 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기본적인 단위가 될 것이다.  
문자 C는 두 왕국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제 <그림 1>을 좀 더 설명하면 더 현실성 있게 보일 것이다.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바를 하나님의 나라로, 민주 자본주의를 세속 나라로 보고 <그림 1>을 비교해 본다면 두 왕국간의 관계는 명확히 구별될 것이다. 이것이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2) 두 왕국의 대비

하나님 왕국(A)		이 세상 왕국(B)
국민의 전체적 복지	주요 목표	재산권으로 표현된 개인의 자유
기독교적 사랑	목표에 도달하는 주요 동인	약간의 도덕적 자제로 무장된 이기심
협동	목표에 대한 수단	경쟁
욕구에 기초를 둔 자발적인 공유	배분 장치	경매 가격 제도
규범 설정과 제자화에 있어서 교회의 관련	과정에 대한 규제자 또는 안내자	제한된 정부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경제문제에 있어서 세상왕국과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관계에서 살게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왕국의 제도 내에서 살아갈 때 항상 타인이요 순례자 임을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 경우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경제관계를 약간 수정 보완하면 하나님 나라의 규범과 일치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 소그룹 신앙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실천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은 어떤 것이 되겠는가? 자기실현과 자족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되어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천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다음 세 가지 특질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1. 신앙공동체는 충분히 작아서 그 구성원들이 헌신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할 것(다섯 내지 열 가정).

2. 각 신앙공동체는 일반적인 지침과 지원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좀 더 큰 단체에 속할 것. 기독교적 교육, 사회 전도사업, 출판능력, 일반적인 행위규범을 결정하는데 대한 도움등은 작은 신앙공동체가 더 큰 회중이나 지역적 그룹으로 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함.

3. 교단적인 유대관계는 세계적인 선교 및 신학적 역사적 유산을 위해 귀중할 것임. 크리스찬 비전을 국제화하는 것은 한 신앙공동체가 안으로만 자라서 지방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일 것임.

### 실천을 위한 급진적인 경제모델

하나님 나라와 세속 나라 사이의 대비점을 살펴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소득창출, 소비, 자산 그리고 생산적인 투자 부문에 있어서 신자들이 어떻게 더욱 더 책임있는 자가 될 수 있을가를 논의해 보자.

**소득 창출에 있어서의 선택:** 신자들은 세속적 및 기독교적인 다양한 조직

에 고용되어 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소득이 높은 쪽을 택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신앙공동체에서는 어떤 직장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신자들의 직장 선택에 조언을 주어야 한다. 신자들 사이에 있어서 은사 분별의 문제는 주일학교와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넘어서 직장선택의 경우까지에도 일반화 되어야 한다. 신앙공동체가 구성원의 직장에 대해 축복할 때, 경제적인 다른 문제에도 관계하기가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신앙공동체는 일과 여가의 선택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에 있어서의 선택: 가족 소득의 첫번째 쓰임은 보통 소비에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유지할 수 있는 생활수준을 결정하고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보호하려고 한다. 소비수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어떠한 가치들이 그러한 수준과 미래 소비의 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세상적인 답변은 간단하다. 소득수준이 소비수준을 결정하며 가능한 한 급속한 성장을 희망하는 것이다. 영속적인 성장이 서구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이다.

크리스찬 봉사의 특별한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 단순한 생활과 낮은 봉급을 선택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크리스찬이 다른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소비야말로 현대 크리스찬이 그들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영역이다.

왜 그러나 하면 첫째로, 소비에 쓰여져 버렸기에 자선이나 생산적인 투자에 쓰여질 돈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둘째로, 사람들은 자기 보다 훨씬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과는 관계를 잘 맺지 않으려 하므로, 평균 이상의 훨씬 높은 생활수준을 가진 자들은 그 사역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물질의 풍요는 자기 충족감을 느끼게 되어 하나님을 밀어내는(crowding out)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네번째로, 물질의 풍요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과 범죄방지를 위한 추가 지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는, 사치스러운 생활은 모든 곳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도 왜 교회는 그토록 소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만 있는가? 아마 문제가 너무나 복잡해서, 즉 설교자가 어느 것은 사치품이고 어느 것은 필수품인가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말로 설교자는 설교할 용기를 잃어 버릴 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분별력을 사용하여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보다 더 책임있는 자원 사용자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몇가지 소비에 대한 제안은 우리의 소비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소비의 수준은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의 평균수준을 포함하고 있는 잘 고려된 일정한 범위안에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율법적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이 기도와 신중한 생각과 그 공동체의 축복하에서만 이 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어떤 기대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비수준의 이탈이 습관에 의해서거나, 급속한 소득 변화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선교사업과 관련되어서거나 특별한 가족적 필요를 고려한 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크리스찬 그룹들은 구성원이 기꺼이 공유하고 서로서로 책임지기를 원할 때는 이러한 청지기적 수행이 훨씬 쉽고 그 반대급부(기쁨)가 큰 것을 알게 되어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세속적인 기준은 예외 없이 성공과 중요성의 증거로 지속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꼽고 있다. 만약 교회가 사치를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이 신자들의 기준이 되고 말 것이다.

주는 것에 있어서의 선택: 소비가 줄어들면 그 돈이 반드시 자선으로 쓰인다는 법은 없다. 물론 생산적인 투자에 직접적으로 쓰여져도 좋을 것이다. 주는 것의 한 측면은 너무나 자주 간과되고 있는데, 바로 풍성하게 나눠가지는 것이 신자들에게 주는 기쁨의 측면이다. 비록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주는 것의 참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이다. 성경 어느 곳

에도 그들의 재산을 남들과 나눠가지는 자에게 풍성한 생활수준을 약속해 주지는 않는다. 마태복음 6:33은 신자들로 하여금 현재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명백히, 나눠 가지는 경제모델을 실천하기를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구절이지만 자주 오용되기도 한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계명은 위에서 기술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백합과 새들에게 제공하셨던 삶의 기본적 욕구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다. 명백히 사치스러운 소비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생산적인 투자에 있어서의 선택:** 생산적인 투자는 미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도구를 사는데 쓰이는 지출이다. 기업인은 그의 소득에 대한 세 가지 합법적인 지출이 있다. 소비가 결정되고 자선을 위한 금액이 책정되면 남은 소득은 생산적 자본투자로 가든지 아니면 추가적 자선으로 가게 된다. 어떻게 이러한 분할이 이루어지는가는 부분적으로 그 기업의 결정에 의하며, 또 부분적으로는 신앙공동체로부터 지침을 필요로 하는 결정에 달려 있다. 최소한 교회의 미션과 개인기업의 미션이 어떻게 보완적이 되며 이용 가능한 자금으로 어떻게 서로 도움을 받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명백히 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모델의 장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생활방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주요한 결정은 개인 혼자 또는 지배적인 사회 추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개인 소비와 기업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인 자치성은 어느 정도 희생된다. 둘째, 성도들은 자기 생활방식에 대한 교회의 축복 속에 산다는 확신이 있다. 셋째,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가진 자원의 10%뿐 아니라 전체 100%에 대해서 통제하실 수 있다. 넷째, 사회전체로는 크리스찬들을 보는 것으로 물질적인 것을 능가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투자와 직업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은 집단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투자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개인의 기득권 보다 우선하게 된다. 여섯째로 이 모델은 성도

의 교제생활에 더 깊이 관련되도록 격려해 준다.

개인이 아니라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기본적인 경제단위가 되는 이러한 급진적 경제모델은 또 다음과 같은 면에서 반대를 받을 수 있다. 첫째, 고소득 수입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소득에 대한 유인을 덜 가지게 되어서, 그들의 생산성이 떨어질지 모른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보조금 받는 것을 일하는 것 보다 더 좋아하게 될지 모른다. 셋째로, 그룹 의사결정과정은 사람들을 전문지식이나 훈련이 없는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한다. 넷째, 어떻게 그룹결정은 이기적인 개인결정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으로 균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등이다.

첫째와 둘째의 문제점은 만약 구성원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다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더 높은 소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즉 그들의 재산이 하나님과 교회를 봉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그런 신앙공동체에 헌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하기보다는 교회의 도움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갈라디아서 6:5),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데살로니가후서 3:10) 등을 강조하여 제자화 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오늘날 경제문제의 근원은 영적·신앙적 문제로 인해 생겼다는 전제<sup>15)</sup>에서 첫째, 신앙과 경제생활의 분리, 둘째, 기독교 경제윤리를 실천하기를 격려하는 힘이 미약하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사회변혁의 소리를 높이 외치는 자들은 많지만

15) K. E. Boulding은 모든 경제문제는 영적문제라고 설파하였고, 정치철학자 러셀 커크는 “모든 경제문제는 정치문제로 녹아들고, 정치문제는 윤리문제로, 윤리문제는 종교문제로 녹아든다.”고 한 말에 필자도 공감한다. E. Calvin Beisner, Prospects for Growth : A Biblical View of Population, Resources, and the Future, Crossway Books, 1990. p. 19.



실천하는 자는 드문 것이 기독교 경제윤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기독교 경제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소그룹을 통한 경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증시하는 두 왕국 접근법은, 오늘날 세속적인 논리와 경제관이 지배적인 세상(신자들을 포함한)을 변화시키는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모델이 되리라 믿는다.

이상에서 살펴 본, 신앙과 경제생활의 통합, 공동체를 통한 기독교 경제윤리의 실천은 이미 400여년 전에 칼빈이 예견하고 주장하였던 중요한 주제이므로 이제 칼빈의 경제윤리를 인용함으로써 끝을 맺고자 한다.

모든 회원들 사이에서 이 같이 물품을 상호 교환하는 일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칼빈은 집사제도를 새롭게 설립한다. 초대교회를 모방해서 칼빈은 돈이 영적 생활의 영역안에 다시 들어오도록 유도했다. 칼빈은 재산의 존재 이유를 다시 밝혀주었고 경제학이 지상에서 봉사할 기회를 제공했다. 집사들의 의무는 공동체의 회원들 사이에서 재산이 상용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에서 영적 단결력이 더욱 공고해지도록 하는 일이다. 공동체의 회원들 전체가 타인들의 영적 생활, 물질적 조건, 육체적 건강에 대해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동체 외부에까지 관심의 폭을 넓혀서 해외의 가난한 신교도들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없는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

상품유통에 관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교훈을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시켜 볼 때 우리는 심각한 반성과 개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집사제도가 가지고 있던 기능과 돈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새롭게 재음미되어야만 한다. 집사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자이다. 그의 봉사는 다른 봉사와 같은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집사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일원들에게 물질생활, 상품, 시간, 재능 따위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목사, 집사, 교회의 일원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기독교적 훈련의 필수적인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점을 재발견해야만 한다. 오늘날 일부 칼빈주의 교회에서

이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곳도 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교인들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여 교인들에게 자선표를 제공한다. 이 자선표는 교인의 수입과 재산 정도에 따라 자선해야 할 물품 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그같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교구 및 교회행정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신도들이 서로 돕고 구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해외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5~6명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모여 새로운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을 통해 그들은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시간을 사용하며 노동, 여가, 돈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sup>16)</sup>

---

16) 앙드레 비엘러, 같은 책, pp. 120~122.